‘장수 농축산물’ 몽골 수출

몽골 올란바토르에 한우 · 사과 등 다양한 품목 수출… 300만불 규모 협약 체결

최훈식 장수군수의 지역 농특산물 수출 발품 세일즈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장수군은 국내 수출업체인 LS Trading과 몽골 현지유통업체인 CassTown LLC, KGC LLC와 300만불(한화 약 40억 원) 규모의 장수군 농축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해 장수 한우 수출에 이어 올해에는 장수의 주력 품목인 사과, 김치, 토마토, 식혜, 김부각 등 다양한 품목을 몽골 올란바토르에 수출하게 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 협약을 위해 장정복 군의회 의장과 수출 참여업체인 장계농협, 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장수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함께 4일 출국해 3박 4일 일정으로 몽골 농축산물 수출 판로 모색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정복 군의회 의장, 몽골 종합유통회사 CassTown 잉크밧 회장과 몽골 수입업체 KGC 이트겔 대표, 국내 수출업체인 LS Trading 이윤세 대표, 장계농협 곽점용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협약식에서는 장수군 농축산물 몽골 현지 유통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농특산물 판로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장수군은 국내 수출업체인 LS Trading과 몽골 현지유통업체인 CassTown LLC, KGC LLC와 300만불(한화 약 40억 원) 규모의 장수군 농축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최 군수는 ‘장수군 농축산물 300만불 수출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몽골 농림부 차관, 코트라 관장, 울란바토르 시장 미팅을 통해 장수군 현황 소개 및 농축산물 수출, 판로 확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장수 한우 판매와 장수군 농특산물인 사과, 오미자청, 오미자주, 식혜, 김치 등 다양한 품목의 판촉 행사를 병행 추진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몽골에서 장수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최고급 음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수하늘소 레스토랑’에서 VIP 회원 100여 명을 초청해 장수군 특산품인 한우와 사과, 오미자, 토마토, 김치 등 시음 · 시식회를 진행하며 장수군 농축산물의 맛과 우수성 홍보에 앞장섰다.

최훈식 군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몽골을 비롯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반디랜드 동물 체험장 인기

곤충이야기 체험관 등 차별화된 매력으로 관람객 방문 이어져

무주군 반디랜드 내 어린이들을 위한 소규모 ‘동물 체험장’과 ‘곤충이야기 체험관’이 무주를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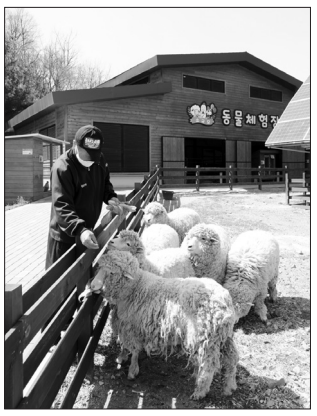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동물 체험장’은 162㎡ 규모에 축사체험과 면양(9마리), 닭(16마리), 토끼(4마리)를 볼 수 있는 사육장 시설이 마련돼 있다. 가금류와 토끼도 볼 수 있으며 면양들에게 먹이 주기와 사진 찍기 체험 등도 가능하다.

관람 시간은 7월 1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관람객 편의를 고려해 기존보다 개장은 2시간 앞당기고 폐장 시간은 2시간 연장했다. 월요일에 휴장(주말 및 공휴일 운영)하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에 휴장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정창남 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관람객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만여 명이 동물 체험장을 방문 했다”며 “개장시간을 확대 · 운영함으로써 자연특별시 무주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디랜드 소규모 동물농장 바로 옆에 위치한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도 볼거리를 확대했다.

‘무주곤충이야기 체험관’은 곤충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아있는 곤충과 나비를 만나 볼 수 있으며, 아이들이 관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곤충은 애반딧불이를 비롯해 물방개와 장구애비 등 수서곤충, 나비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애완 · 학습곤충, 그리고 식용곤충 4종을 포함해 총 15종이 전시돼 있다. 만들기 체험공간에서는 곤충반지와 컬러비즈, 곤충화석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은 “곤충의 이해와 친근감을 키워주는 학습 공간으로서 반디랜드 곤충박물관과는 차별화된 매력으로 방문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주에 서식하는 곤충과 나비 전시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등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도입

진안군, 여름철 피서객 많이 찾는 가막천 · 섬바위 · 정자천에 설치

진안군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골든타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4대를 가막천, 섬바위, 정자천에 설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로켓발사기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발사해 구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다.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로켓발사기로 구명튜브를 쏘아 먼 거리의 익수자를 구할 수 있다.

유효사거리는 최소 20m에서 최대 60m까지 10m 간격으로 발사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날아간 튜브는 물에 닿은 직후 3~6초 이내에 부풀어 올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40회까지 발사할 수 있어 다수의 익수자를 동시에 구조 가능하다.

군은 여름철 피서객은 물론 군민이 수심이 깊은 하천에 빠졌을 때 사용하면 익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세외수입 운영 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세외수입 운영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얼마나 세외수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비교 · 평가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징수율과 징수액 증감율 등 8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한다.

무주군은 지난해 세외수입 부과액 241억9천4백만 원 중 231억5천5백만 원을 징수해 95.7%의 징수율(전년 대비 2%증가)을 보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율과 △세외수입 징수액 신장율, △이월체납액 정리율 등 3개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진단분석을 통해 얻은 21억2천5백만 원의 이자 수입과 국세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2억5천5백만 원의 환급 성과는 세외수입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과 더불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백운면, ‘농촌협약사업’ 본격 추진

백운면이 농촌협약 협의체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촌 정주권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농촌협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백운면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4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활용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백운면은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의 가교역할 수행을 위해 2023년 백운면 농촌협약 협의체 주민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운면 농촌협약 협의체 주민위원으로 선정된 11명은 유형별 사업 참여와 발전협의회 참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다. 또한 사업완료 후 운영위원회로 계승하여 시설물 등에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는 운영관리주체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백운면 농촌협약 협의체 주민위원회는 6월 27일(1차), 7월 5일(2차)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정, 농촌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및 현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곽동원 면장은 “앞으로 4년간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되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 백운이 될 것이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농촌협약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심의 · 의결

진안군이 2022년 재조사사업지구인 진안읍 마동지구를 비롯한 6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경계설정을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부장판사)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오른 재조사사업지구는 진안읍 마구동지구(340필지/116,466.8㎡), 진안읍 오천1지구(1,254필지/776,722.7㎡), 안천면 백화1지구(245필지/182,318.6㎡), 안천면 백화2지구(352필지/186,006.2㎡), 마령면 덕천2지구(577필지/296,745㎡), 주천면 운봉지구(659필지/554,336.3㎡) 총 6개사업지구(3,427필지/2,112,595.6㎡)이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년에 지구 · 지정된 사업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3월 주민동의서를 받아 재조사측량과 토지소유자 등의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20일간 접수된 의견제출을 처리하고 사업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을 심의 · 의결했다.

진안군은 오는 17일부터 토지소유자등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의뢰 · 산정하여 조정금을 부과 ·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경로당 친환경 해충 퇴치기 설치

무주군이 6개 읍 · 면 전체 경로당(271곳)에 해충(모기 및 파리) 퇴치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충 퇴치기는 시설 내 해충을 제거하고 모기를 매개로한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황열 등의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총 사업비 4천9백여만 원을 투입해 7월 중순까지 친환경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이승하 과장은 “어르신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경로당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